

유적지 순례 93

景惠公 專과 忠莊公 自愼, 顯德王后

경혜공 전

충장공

자신

현덕왕후



△천성공 백종(伯宗) 정효각: 안동시 성곡동 1460번지 민속박물관내



△경혜공 전 묘소: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신, 구도로 삼거리 우측 500m)



△오이재: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경혜공 재실)



△경혜공 신도비와 묘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충장공 전절각: 군위군 효령면 노항리 노매실



△진절각 충효문

천성공(贊成公) 백종(伯宗)

공의 증조는 평장사(平章事) 휘 경보(景輔) 보이고 조고는 주부를 지낸 휘 휴(休)이며 고위는 판도정랑(版圖正郎) 휘 정평(正平)이다. 재산 권상규(相奎)가 찬한 묘갈명에 공은 효성(孝誠)이 출천(出天)하고 부모 봉양에 성력(誠力)을 다하며 고종하니 여묘(廬墓)에서 3년 시묘살이를 하였고 고려 충목왕 1년 효행(孝行)을 표상하였으니 정효비각(旌孝碑閣)이 안동부 서안기에 있다가 안동시 성곡동(안동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겨졌으며 공은 효성과 충성이 극진하여 한성판윤(漢城判尹)시 치적은 백세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단종이 피화(被禍)하니 공의 자손은 거의 처형되고 가승에 유적(遺蹟)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명에 “효도는 현부(賢父)의 자(子)됨이요 존위(尊位)는 왕후의 조부됨이라 왕실에 번고가 비상(非常)하여 사기에 화해(禍害)가 파급하였도다” 하였다.

공은 정조 8년 단종이 복위됨에 따라 신원(伸寃)되어 승정대부(承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안동시 외룡면 도곡동에 있는데 실전되었다가 숙종 42년에 후손 창손(昌孫)이 지식과 단비를 찾아 수지하였다.

후사는 경혜공 전(景惠公 專), 현감공 촌(村), 기를 두었다.

증화산부원군 경혜공 전(贈花山府院君 景惠公 專)

공은 공민왕 21년 안동 성남리에서 출생하였다. 세종 7년 54세로 봉정대부 사헌부 집의가 되고 세종 13년 평안도 가산의 지군사(知郡事)로 나갔는데 이때(辛亥年) 딸이 세자궁(世子宮)으로 책봉되어 입궁하니 승휘(承徽)로 봉해지고 공도 한성부 소윤(少尹)으로 들어왔다가 중추대부 궁기감정(軍器監正)이 되었다. 세종 14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세종 16년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오르고 세종 17년 고조,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세종 19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세종 20년 공조참판(工曹參判)에 보임되었다가 12월 자헌대부(資憲大夫) 중추원사(中樞院使)가 되었으며 세종 22년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올랐다. 세종 23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보임되었다가 한성부사(漢城府事)가 되었다. 7월에 세자빈(世子嬪)이 세손을 출산하니 단종(端宗)이다. 임금의 정전에서 군신의 하례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베풀었는데 애석하게도 3일 만에 산후병으로 죽자 세종은 공을 불러 “권빈(權嬪)은 나의 총애를 받던 터에 이어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 그러나 원손(元孫)을 출산한은 나의 즐거움이며 인명(人命)은 인위(人爲)로 할 수 없는 것이니 경은 나를 위해 애통한 마음을 절제하라”하였다. 공은 비도상심(悲悼傷心)하여 병이 나니 왕은 내의를 보내 치료케 하고 약물을 하사(下賜)하였는데 별세하니 향년 70세였다. 임금은 심히 애도하여 조회를 2일간 폐하였다. 시호를 경혜(景惠)로 내리니 경은 유의이제(由義而濟) 해는 애민호여(愛民好與)이다.

공은 대광보국승목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 세자사(世子師)로 추증되고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오이산 서쪽에 장사하였는데 2년 후 지식(誌石)을 세웠다. 금석문(金石文)에 의하면 공은 소시부터 기우(氣宇)가 탁연(卓英)하고 효행이 순지(純至)하였으며 의행(義行)이 청렴충직(淸廉忠直)하니 높은 벼슬에 올라서도 교만과 사치가 없었다 하였다.

단종(端宗)이 순위(遜位)되고 세조 2년 아들 자신(自愼)이 사육신과 더불어 화를 당한 후 현덕왕후(顯德王后)가 추폐될 때 공의 관직이 모두 삭탈되었다. 250여년이 지나 숙종조에 사육신(死六臣)이 신설(伸雪)되고 단종이 복위된 후 숙종 25년 공의 관직이 모두 추복(追復)되었다. 정조 14년 영남의 유생들이 부조지전(不挑之典)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추존(追尊) 사제문(賜祭文)에 “화산(花山府院君)을 생각하니 부앙(俯仰)해서 느낀 회포 더욱 슬프다. 이제 그 자손까지 민흘은 전병시(愍恤恩典併施)하고 공의 구좌 복관되었으니 승은(崇恩)에 유감없이 존령(尊靈)은 위안(慰安)되리 전의(典禮)를 거행함에 혼령(魂靈)은 흠향(歆饗)하시라”하였다.



△현릉 제향 모습(제례 후 헌관 집사자 기념촬영)

묘소는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신 구도로 삼거리 우측 500m) 제비원에 있으며 재실 오이재가 있다.

후사는 충장공(忠裝公) 자신(自愼), 자근(自謹), 사위 김영명, 조청로, 권산해(竹林公 山海-좌윤공 9세), 사위 윤영순, 그리고 현덕왕후(顯德王后) 순임(順任)을 두었다.

충장공(忠裝公) 자신(自愼)

공은 경혜공의 장남으로 태종 18년 출생하였다. 단종의 외숙으로 단종 1년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세조 1년 참판(參判)으로 추증되임공신이 되고 세조 2년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었는데 사육신(死六臣)과 더불어 단종 복위가 탄포되어 거열형(車裂刑)으로 죽하였다. 모친 최씨도 형사(刑死)되고 선고 경혜공, 조고 찬성공까지 관직이 추폐되었다가 중종 8년 죄명이 풀리고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면서 복직(復職)과 함께 충장(忠莊)의 시호가 내렸다. 문간공(文簡公) 홍계희(洪啓禧)가 시장을 지었는데 “공은 당시에 시사여귀(視死如歸)하였으니 그의 탁연(卓然)한 절의(節義)는 박광년 삼삼문 제공과 다름없고 조정에서 표창하는 것은 제공과 같이 할 뿐이다. 권공의 살신성인(殺身成仁)한가지만으로도 대서특필할 일이니 작은 일은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이다”하였다. 정조 15년 일자에 공은 영월 장릉(莊陵)의 충신각(忠臣閣)에 사육신과 함께 배향되고 광주 동학사의 숙모전(肅慕殿)에 배향되었다.

훗날 사림(士林)의 발의로 영덕군 청수면 미곡의 대봉서원(大峰書院)에 제향되었는데 고계(古溪) 이휘년(李暉年)의 상향축문에 [삼세(三世)를 효도하고 육신과 충성을 같이 했으며 절의를 닦았으니 푸른하늘에 물 올만 하다. 三世侍孝 六臣同忠 所事盡節 可質蒼穹]라 하였다. 여기 진절(盡節)을 따 고종 25년 후손들이 군위의 노매실에 진절각(盡節閣)을 짓고 제향을 받들고 있으며 기문은 영친 이태능(李泰能)이 지었다.

현덕왕후(顯德王后)

태종 18년 충청도 홍주(洪州)의 함덕현에서 출생하였다. 세종 13년 14세에 세자빈 임(嬪)으로 간택되어 동궁에 들어가 종 5품 소훈(昭訓)이 되었고 이어 승휘(承徽)로 오르고 세종 15년 종 3품 양임(良嬪)이 되었다. 세종 19년 문종의 두 번째 빈 순빈 봉(奉)씨가 폐인이 되고 빈(嬪)을 삼았다. 세종 23년 원손(元孫) 단종(端宗)을 출산하고 3일만에 홍사(夢逝)하니 임궁한지 10년 만인 24세였다. 성품이 단아(端雅)하고 효심이 깊어 세종대왕과 왕후의 총애를 받았는데 산후병으로 흥(薨)하자 세종이 매우 애도하였으며 상장(喪葬)은 종형인 권자홍(權自弘)이 주관하고 경기 안산의 고읍에서 안장하였다. 7월 세자빈의 시호를 내려 현덕(顯德)이라 하였으니 현은 행견중외(行見中外)요 덕은 증화순숙(忠和純淑)이다. 빈구 발인에 호조판서 김맹성(金孟誠) 예조판서 민의생(閔義生) 등을 집빈으로 하였다. 지문(誌文)에 무술(戊戌) 홍주 사제에서 탄생하니 천성이 숙의(淑懿)하고 자상(資相)이 비상하며 언행이 중절(中節)하였다. 하느님은 어찌하여 그에 수명을 주지 않아 사제(辭世)하여 행복(享福)하지 못하는고? 슬프도다! 어찌하리? 비에 글만 새기노라. 고 하였다.

세종 32년 문종이 즉위하자 왕후로 추승 되어 현덕빈(顯德嬪)에서 현덕왕후(顯德王后)로 되고 혼전(魂殿)은 경희전(景禧殿)으로 능호하는 소릉(召陵)이다. 단종이 즉위하자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東九陵) 문종과 합장 하면서 현릉(顯陵)으로 개호되었으며 단종 2년 존호가 인효순혜(仁孝順惠)로 추상되고 문종(文宗)의 신주(神主)와 함께 종묘(宗廟)에 봉안되었다.

세조 3년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었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명호가 없지 않으니 서인으로 삼고 개장해야 한다는 의정부의 계(啓)에 따라 폐위되고 신주가 종묘에서 철거되고 현릉에서도 파내 도로 안산으로 옮겼다. 성종 2년 유생 남효은(南孝溫)이 추복을 상소하고 중종 7년 경연(經筵)에서 소세암이 추복을 청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중종 8년 왕의 전교로 추복되

어 안산에서 다시 동구릉 현릉의 동쪽에 천장(遷葬)되고 신주가 종묘의 문종실에 환안(還安)되었다. 소생은 단종과 영양위(寧陽尉) 정종(鄭宗)에게 출가한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있다.

(김수 권재규 현릉 권경석)



△진절각 첨경재



△충장공 교지: 군위 노매실 문종소장



△충장공 시호: 군위 노매실



△영월 장릉 배향원 (예조판서충장공, 권안, 사육신 등 위패)



△영월 장릉 충신각(세조에게 피화된 충신을 모신 사당)좌측 위에 단종묘가 있다.



△현덕왕후릉: 구리시 동구릉(좌측에 문종묘가 있다.)